

신산업 기술로 창의적 공학 마인드 함양

전북대, 자율주행차·드론 체험 캠프 '호응'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센터장 이종열)와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관한 창의기술아카데미가 호남권역 중·고등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16기 창의기술아카데미는 신산업 중요 기술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교육을 주요 테마로 청소년들의 공학적 이해와 창의적 공학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차 교육 과정은 ▶이두이노 개발 환경 및 프로그래밍 ▶센싱 및 구동 기술 이해 ▶군집주행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론 및 실습 ▶탐색 프로젝트: 군집주행시스템 Mission(라인 트레이싱 및 장애물 회피 경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드론 교육 과정은 ▶군집비행 알고리즘 교육 및 실습 ▶군집비행을 위한 경로 설계 ▶탐색 프로젝트: 군집비행을 위한 작품 구성 및 코딩 ▶드론비

행 경진대회 등으로 이뤄졌다. 창의기술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팀워크 능력을 기르고 학습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전북대 공과대학 학생 20여 명을 참여 학생들과 매칭해 교육 활동과 이공계 진학 및 진로 지도, 전공 교과 과정 소개 등 멘토링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특별 미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확대하고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군산제일고등학교 김경호 학생은 "평소에 군집주행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시행착오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큰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며 "기업 견학, 융합 특강, 기업가정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에 대한 도움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열 센터장은 "창의적 미래 인재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와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관한 창의기술아카데미가 호남권역 중·고등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육성은 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대학교육과 연계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공학 분야 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호남·제주 권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창의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2학기 신입생 21일까지 모집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대진)에서는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교육복지학부와 생활교양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직업교육학부, 예술학부 등 전주시역 213개 강좌, 익산지역 16개 강좌 등 총 229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88-0022), 인터넷(http://oc.jnu.ac.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문·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

2학기 교육은 9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주 동안 전주 경영동에 자리한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익산 특성화캠퍼스 내 교양관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대학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1974년 이전 출생자로 수강신청 절차를 거치면 의·치의·수의학, 간호, 예술 등 특수 전문 분야를 제외한 대학 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8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평창 용평동에서 열린 '2019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 시범 분야, 세계 정상에 '우뚝'

전주대, 평창 세계태권도 한마당서 종합 우승 쾌거

전북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평창 용평동에서 열린 '2019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 단체전 팀 대항 종합경연 시니어 I·II 통합 부문, 1·3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세계 57개국 5천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축제다. 이중 가장 이목이 쏠리는 종목은 단연, 단체전 팀 대항 종합경연 시니어 I·II 통합 부문이다.

팀 대항 종합경연은 품새, 격파 등의 지정된 태권도 기술을 활용하여 9~13명의 선수가 경연하는 종목으로 선수들은 소속팀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종목에서 전주대 태권도화파는 A, B팀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며 출전한 모든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고 '태권도 시범' 분야 세계 정상에 서는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Fire Fighter팀(A팀)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결연한 모습을 태권도 시범으로 풀어 경연을 펼쳐 최고점인 72.50점을 받게 됐다. 2위인 제2군단시범부보다 (71.00점) 0.90점 높은 점수다.

Fire Fighter팀은 2019년 강원 대형산불에 투입된 119 소방관의 투지와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119 소방관이 화마와 싸우는 모습을 태권도 기술인 호신술, 회전격파, 단체격파, 품새 등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시범으로 표현해냈다.

소방 호스와 화재연기 등 각종 소품과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무대 완성도를 더욱 높였고, 고난도 기술을 모두 성공시키며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화파는 2014년·2015년 세계 태권도한마당, '개인 종합경연'과 '팀 종합경연'에서 종합 3위, 2016년 종합 1위를 차지한 태권도 명문으로 3년 만에 또다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미국 고교생 초청 'NSLI-Y 프로그램' 진행

미국 고등학생들이 전주에서 한국을 만난다.

미국 국무부의 청소년 해외 파견 사업인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프로그램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NSLI-Y는 미국 정부에서 자국의 고등학생을 선발해 세계 주요 언어 사용 국가에 파견, 현장에서 해당 언어와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주에서 교육이 이뤄져 왔다. 미국 국무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19명의 미국 고교생들은 6주 동안 머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한다. 올해는 전주신흥고에서 총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100시간에 이르는 체험형 한국문화 교육이 진행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0일 신흥고를 방문해 미국 고등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많이 느끼고 체험하며,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같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남은 시간도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미국에 가서도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스포츠'로 하나 된 청소년들... "11월에 다시만나요"

한·중 스포츠교류전 성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전이 막을 내렸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일주일 간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전'이 성황리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교류전은 꿈나무 선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양국의 체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체육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돼, 중국 쓰촨성 러산시(낙산시) 선수들이 전주를 방문했다.

교류전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총 3개 종목이 펼쳐졌고 약 160명(한국·중국 각 80명)이 합동훈련과 연

습 경기, 공식경기, 문화탐방 시간 등을 가졌다. 양 국의 청소년들은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스포츠'로 하나가 됐다.

이들은 합동연습과 공식경기 등을 통해 구슬땀을 흘렸고, 함께 식사를 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선의의 경쟁 속 국경을 넘는 우정을 다졌다.

탁구 종목에 참여했던 중국의 장완치는 "한국 친구들이 베풀어 준 환대와 배려에 감동받았고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며 "좋은 훈련 시설에서 한국 친구들과 연습은 물론이고 경기를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구가 된 이들은 헤어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만나게 될 11월을 기약했다. 한국 선수단 임관희(배드민턴)는 "국적과 언어 모든 것이 다르지

만 체육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며 "좋은 선수로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한국과 중국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고, 이 교류전 역시 양 국을 든든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를 통해 친선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시작된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전은 양 국의 스포츠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의 교류 프로그램 사업이다. 오는 11월에는 한국 선수단이 중국 쓰촨성에서 교류전을 펼치게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전북도교육청이 많은 전북교육 실현과 견실시공을 위한 '2019년 제1회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 효천초 신축공사를 비롯해 18개 시공사 대표 및 현장대리인 36명이 참

석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과 시설과장, 공사감독 및 관련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공자와 감독자의 청렴 협약식을 통해 상호간의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상호간 이해를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

이다. 특히 도교육청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부실시공 방지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276개 현장, 825명과 청렴서약을 체결,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